

이 참석한 Joint Network Meeting이 있었다. Joint Network Meeting은 크게 4 session 으로 나뉘어서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주요 네트워크의 책임자들이 각 네트워크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Pannel Discussion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들 전체가 모여서 전체 R & D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Global Network의 구성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다. 이외에도 연회등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간에 대화를 나누고, 또 관계된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끼리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하여 현재 수행중인 연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ACM, IEEE와 같은 대규모 학술 단체가 주관하는 컴퓨터 관련 분야의 국제 규모 학술회의가 백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외에도 CalTeh VLSI Conference 와 같은 소규모의 것을 합하면 수백개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도 수십개에 이르고 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수도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학술 회의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첨단 정보의 교환 장소로서 전문화되어 있으며,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학술회의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을 거의 볼 수 없다. 미국 다음의 컴퓨터 강대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자생적인 것으로 국제 규모의 것은 FGCS Conference 정도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로 가면 더욱 빈약해진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의 정보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같은 규모의 국제 학술회의를 나름대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학술회의를 통로로 하여 전문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정보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전문인들간의 실질적 교류 관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면, 첨단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기회를 더욱 잘 활용하여야 하겠다. 특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구미지역과 지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우리로서는 국제 학술회의의 개최가 이러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주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이 같은 국제 학술회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활용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분야의 기반(infrastructure)을 탄탄히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PTC '86 참관기

孫 龍

(중앙대학교 교수, PTC 이사)

Pacific Telecommunications Council (PTC) 은 현대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 유일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협의회이다.

PTC (태평양전기통신협회)는 태평양지역, 즉 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주

둘러싸인 전지역 전기통신의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국제적·비정치적·비영리 단체이다.

이 협의회는 학자나 과학자,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통신서비스의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

여 태평양 전기통신의 발전을 모색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협력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80년 1월에 처음으로 창설된 이 협의회는 500명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program이나 활동보다는 각국의 정보와 사상,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전기통신 발전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1월 중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각국의 전기통신 정책입안자와 학자, 기술자들이 각 분야를 통해서 주제발표와 토의를 하며, 최신 전기통신장비를 전시함으로써 학문적 기술적인 전기통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더우기, PTC는 세계적인 동서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이 기간중에 전기통신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하고 있다.

회의때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을 하며 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회의의 규모를 다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연차회의에 이어 매년 중간세미나를 개최하는데 80년에는 동경, 81년에는 워싱턴 D.C. 84년 멕시코시티 그리고 금년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홍콩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계및 전기통신 분야의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정식 가입되어 있으며 85년 PTC 연차회의에서는 필자와 중앙대 이상철교수를 비롯하여 양승택박사, 전기통신공사의 이용효부사장등이 한국전기통신 분야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표를 한바 있다. 또한 86년 PTC 회의에는 1986년 1월 KBS 사장인 박헌태씨가 초청되어 88서울올림픽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필자와 전기통신공사의 서정욱박사, 그리고 이상철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한국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서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그리고, 한국데이터통신의 유경희위원과 전 MBC

사장인 이환의 현중앙대 객원교수가 새로운 회원으로 추대 되었다. 일찌기 고려대학 윤용교수는 PTC회원및 이사로써 많은 활동을 한바 있다.

PTC회원의 종류는 영리·비영리단체 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가입된 모든 회원들은 PTC계간지와 회보 각종 전기통신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자료를 제공받는다. 각종 회원에 대한 연회비는 1-10명이하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영리단체의 경우 \$375, 그리고 11-100명이하의 영리단체는 \$750, 111-1000명이하의 \$1500, 10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영리단체에서는 \$3000을 회비로 내야한다. 다음, 비영리단체의 회비는 \$600이며, 개인의 경우 \$100의 회비를 내고있다. 또한, PTC이사회에서는 개인회원의 기준을 전기통신분야에서 최소한 10년이상의 교육과 실무경험을한, 전문가및 대학교수, 방송인, 정부관리, 기술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회원의 기준은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구, 재단등의 단체를 포함하여 태평양 전기통신 발전에 관심이 있고, 또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영리단체로는 AT&T, CBS, COMSAT, IBM ITT, 한국전기통신사, NEC, Mitsubishi, NTT RCA, SONY 등의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들이 가입되어 있다. 비영리단체로는 INTELSAT, 동서문화센터, I.D.A.T.E, france, Telecom Canada, KET 등이 있다. □

주소; Pacific Telecommunications Council
1110 University Avenue, Suite 308
Honolulu, Hawaii 96826, USA
Telephone : (808) 941-3789
(808) 949-5752
Telex : 7430550 PTC